

팬데믹으로 멈추고 느려진 공동체 성장

김순진 요셉 신부,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새 주임신부로 부임 미사 봉헌



김순진 요셉 신부가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새 주임신부로 부임 미사를 봉헌한 후 이어진 환영식에서 화동의 꽃다발 증정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김순진 요셉 신부(서울대교구)가 필라델피아 홀리엔젤스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해 지난 19일(일) 오전 10시 첫 미사를 봉헌했다. 김 신부는 작년 6월 13일 새벽 5시, 96세로 선종한 모친 염매자 엘리사벳의 1주기 미사를 가족 친지들과 함께 봉헌하고 4개월의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했다.

신자들은 그동안 사제들을 위한 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치며 팬데믹으로 멈추고 느려진 공동체의 성장에 새 신부가 활력을 쏟아 붓고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을 기도했다. 신자들은 이날 아버지 날에 하느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며 김 신부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김 신부는 그동안 신자들에게 3차례 걸쳐 동영상 통해 소통해왔고 부활절, 성모 성월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잘 대처해 나갔던 선조들의 지혜를 본 받자고 격려했다. 김 신부는 1992년 7월 3일, 사제서품을 받고 청담동 성당 보좌

를 시작으로 변동, 세종로, 서초동을 거쳐 2001년부터 주임신부로 한남동, 방화 3동, 길동, 중계양업 성당에서 사목활동을 펼쳤고 올해로 사제서품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강론에서 김 신부는 “오늘 복음 말씀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 보아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기적의 힘을 체험하게 된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뜻하지 않은 여러가지 변수들이 우리의 계획을 틀어 버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다. 잘못되는 것도 별로 없다. 오히려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 또 다른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낸다. 하느님의 기적은 인간적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혀 엉뚱하게도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 5천 명이 먹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

지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필요했듯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야 기적도 일어난다”며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복음 말씀을 되새겼다. 이어진 환영식에는 화동의 꽃다발 증정과 성가대 특송이 울려 퍼졌다.

신유승 가밀로 사목회장은 인사말에서 “뉴욕 공항에서 신부님을 뵈니 젠틀맨이라는 깨끗한 인상에 매우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 갈 분이라 느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성당을 빨리 정상화하고 신자들의 기도로 성전이 가득 채워지길 빌며 훌륭한 주임신부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신부는 답사에서 “이효언, 정대웅 신부에 이어 제가 세 번째로 오게 된 사제서품 동기들이다. 모두 같은 뱃속에서 나왔으니 성품과 사목활동도 비슷하지 않을까? 2년 뒤엔 우리 성당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기라성 같은 선배 신부님들이 거쳐가셨고 또 그분들의 뜻을 이어서 제가 신자들과 함께 5년 동안 하느님 사랑 안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미사 후에는 아퀴나스 청년회 봉사로 잔치국수가 지하 친교실에서 신자에게 제공되어 기쁨을 더했다.

양경숙 명예기자